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에 나타난 鄉藥本草에 대한 고찰

姜延錫* · 安相佑**

* 한국한의학연구원 학연과정, ** 한국한의학연구원

【 ABSTRACT 】

An examination of the indigenous medicinal herbs that appear in ZhongXiuZhengHuo-JingShiZhengLeiBeiYongBenCao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

GangYeonSeok* · AnSangU**

* Korean Oriental Medicine Research Center Study Course

** Korean Oriental Medicine Research Center

In 1189's ZhongXiuZhengHuoJingShiZhengLeiBeiYongBenCao(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 we took a look at the medicinal herbs that mentioned JoSeon(朝鮮), GoRyeo(高麗), BaekJe(百濟), SinRa(新羅), DongIn(東人), DongHae(東海), YoDong(遼東), and BalHae(渤海). In the face of Korea's Oriental medicine's reality of having medical texts only after the 2nd half of the GoRyeo(高麗) Dynasty, this study will provide the basis of finding the origin of Indigenous Herbal Medical Science that was founded in the late-GoRyeo(高麗),

early-JoSeon(朝鮮) period.

key word : ZhongXiuZhengHuoJingShiZhengLeiBeiYongBenCao(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 indigenous medicinal herbs, Korean Oriental Medicine

I. 서론

1189년에 金 張存惠가 엮은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이하 『備用本草』)는 1082년 宋 唐愼微가 지은 『經史證類備急本草』를 시작으로 여러차례 增補刊行된 『證類本草』의 최종판이라 할 수 있다. 『神農本草經』과 『名醫別錄』을 白字와 墨字로 하고, 또 시기별로 추가된 약재를 唐本先附, 今附, 新補, 新定, 新分條, 圖經餘, 唐愼微續補, 海藥餘, 陳藏器餘 등으로 표시하여 본문으로 하였다. 그 외에 각종 醫書들을 비롯하여 經史에 실린 본초학적 지식들까지도 찾아내어 주석으로 첨가한, 현재의 標準藥典에 해당되는 本草書이다. 각 시기별로 습득된 최신 본초지식을 계속해서 첨가해나갔는데, 『비용본초』는 1116년에 나란히 만들어진 『政和本草』와 寇宗奭의 『本草衍義』까지의 본초지식을 반영하였다.

『증류본초』와 마찬가지로 『鄉藥集成方』 권76-85의 「鄉藥本草」는 朝鮮 前期의 鄉藥만을 추려내어 당대의 최신 本草 및 炮製 지식을 아울렀는데, 『증류본초』의 본초 지식 이외에도 張潔古의 『珍珠囊』, 王好古의 『湯液本草』의 내용과 鄉名, 朝鮮의 產地名, 採取乾正의 방법을 재정리하여 첨가하였다.¹⁾ 「향약본초」에서 참고한 『증류본초』는 이 『비용본초』이며,²⁾ 『東醫寶鑑』 歷代醫方에도 宋 唐愼微의 저술로 『備用本草經史證類』라고 언급되어 있다.

『비용본초』는 12세기까지의 각종 本草理論 및 性味, 效能, 主治, 修治, 採取時期 및 諸家の說과 用例는 물론 產地와 產地別 特性까지도 언급하고 있다. 이 산지에 대한 기록을 통해 이미 金斗鍾은 三國時代에는 人蔘, 金屑, 細辛, 五味子, 款冬花, 昆布, 藺茹, 蕪芎, 銀屑, 白附子, 蜈蚣 등을, 統一新羅時代에는 人蔘, 藍藤根, 大葉藻, 昆布, 白附子, 薄荷, 荊芥, 臘臍臍, 威靈仙 등의 약재가 유명하였다고 언급하였다.³⁾

본 論者는 그 동안 『鄉藥集成方』을 중심으로 朝鮮前期 鄉藥醫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鄉藥은 각 시기 별로 우리나라의 疆域 내에서 自生하거나 生産 가능한 약재인데, 『중수정화경

1) 강연석·안상우, 『鄉藥集成方』 중 「鄉藥本草」의 특성과 성취,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8/1, 2002

2) 강연석·안상우, 『鄉藥集成方』 중 「鄉藥本草」의 특성과 성취,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8/1, 2002, p.24

3) 金斗鍾, 『韓國醫學史(全)』, 探求堂, 1993, p.42, pp.79-82

사증류비용본초』에 產地가 우리나라로 언급된 본초들은 중국에서도 그 약효를 인정받은 우수한 품종의 鄉藥이고, 그 약재들의 투약경험도 중국에 비해 더 풍부했다고 봐야 한다.⁴⁾ 이에 논자는 『비용본초』에 있는 우리나라와 관련된 내용들을 검토하여 12세기까지 중국에서도 인정받은 우수한 鄉藥 品種과 鄉藥醫學에 대한 단편을 찾아 내게 되어 본 논문을 통해 보고한다.

II. 본 론

李圭景의 『五洲衍文長箋散稿』⁵⁾에 ‘東方舊號古事辨證說’에 우리나라를 지칭하는 말로 九夷, 君子國, 朝鮮, 三韓, 海東, 左海, 大東, 靑丘, 鰈域, 震檀, 槿花鄉 등이 거론된다.

『비용본초』에서는 국가명칭인 朝鮮, 高麗(高句麗), 百濟, 新羅, 渤海와 東人, 東海, 海東, 遼東 등이 중국문헌에서 보이는 우리나라를 지칭하는 말로 볼 수 있다. 정확한 국가명칭은 두말할 것 없지만, 중국인들의 입장에서 동쪽을 지칭하는 일반명사로도 쓸 수 있는 것들은 좀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東海’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의 東海와 흔히 동지나해라고 말하는 東中國海(East China Sea)를 지칭하는 말로 혼용되어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禹餘糧, 石硫黃, 丁香, 秦椒 등의 약재들도 ‘生東海’라는 표현을 썼는데, 위 약재들은 당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東人’은 江東人, 河東人, 山東人, 京東人처럼 중국의 일부 지역을 지칭하는 말과 구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예를 들어 鼈의 경우 “閩⁶⁾蜀⁷⁾浙⁸⁾東人, 以爲珍饈, 彼人云‘食之補虛損, 尤宜產婦’, 卽此也”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중국 남동부의 동쪽사람들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를 지칭하는 단어가 들어간 약재들 가운데 『향약집성방』의 향약과 비교해서 인정하기 어려운 것은 제외하였다.⁹⁾

1) 朝鮮

4) 물론 산지가 중국이나 기타 국가로 적혀 있는 약재들 중에서도 향약은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다른 지역의 품종이 더 우수하거나 생산량이 충분하여 향약을 갖다 쓸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5)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下)』卷35, 明文堂, 1982, pp.10-12

6) 福建省 일대

7) 四川省 일대

8) 浙江省 일대

9) 款冬花처럼 문장에서 명백하게 우리나라를 지칭하는 경우는 본 논문의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본문은 아래의 표와 같다. 『五洲衍文長箋散稿』에 朝鮮은 ‘燕之外郊’¹⁰⁾라고 나오므로 이 때의 조선은 요동과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은 豚卵의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鷄子の 조문을 보면 本草經에서는 조선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기록하였지만 후대에 곳곳의 인가에서 기르고 있으므로 조선에서부터 들어왔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조선의 닭이 우수하다는 것¹¹⁾이고, 조선 지역에서 養鷄가 매우 이른 시기에 광범위하게 시행된 것을 알 수 있다.

표13. 朝鮮(古朝鮮)이 언급된 것

| | 『비용본초』 | 『향약집성방』 |
|--------------------|--|--------------|
| 菟絲子 ¹²⁾ | 生朝鮮川澤田野(本經) 圖經曰 菟絲子, 生朝鮮川澤田野. 今近京亦有之, 以宛甸者爲勝. | 새삼씨 生川澤田野 |
| 豚卵 | 豬, 燕朝鮮之間, 謂之豨. | 돼지불알 |
| 雞子 | 生朝鮮平澤(本經) 陶隱居云 朝鮮乃在玄奘樂浪, 不應總是雞所出. 今注 雞入藥用蓋, 取朝鮮者良. 圖經曰 諸雞本經云雞白蠹肥脂, 出朝鮮平澤. 陶隱居云朝鮮, …, 開寶注, …, 取朝鮮者, 良. 今處處人家, 畜養甚多, 不聞自朝鮮來也. | 닭의알 |

2) 高句麗

人蔘 및 昆布 조문을 보면 高句麗 역시 朝鮮과 마찬가지로 遼東과 한반도 일대, 동해를 지칭하는 말임을 알 수 있다.¹³⁾

款冬花나 藺茹의 본문을 보면 중국에서 쓰고 있는 것과 비슷한 종자이나 조금은 다른 약재를 고구려에서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鄉藥醫學의 한 단편을 읽어볼 수 있다.

우선 款冬花의 경우 『鄉藥集成方』, 『鄉藥本草』에는 기재되지 않았고, 또 본문에서도 사용되지 않아 조선전기에 향약으로 인정받지 못했다.¹⁴⁾ 이는 첫째 요동지방에서는 자생했지만 한반도에

10)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下)』卷35, 明文堂, 1982, p.11

11) 取朝鮮者, 良.

12) 本草圖經序: 生出郡縣則以本經爲先, 今時所宜次之, 若菟絲生於朝鮮, 今則出於宛甸.

13) ‘高麗即是遼東.’ 이 문장은 李時珍이 『本草綱目』 人蔘 조문 集解에 『증류본초』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았고, 四庫全書 판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1977년 人民衛生出版社의 『本草綱目』 交點本에서는 아무런 주석과 설명없이 ‘高麗地近遼東’이라고 의도적으로 문장을 바꾸어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교점본에 수많은 주석이 달린 것을 보면 그 저의를 의심할만 하다. 아쉽게도 이 오류는 인민위생출판사의 것을 저본으로 『本草綱目』의 인삼조문을 현토 번역한 尹暢烈의 논문에서 바로잡혀지지 않았다. 한편 이시진은 자신의 견해를 밝힌 부분에서 ‘今所用者皆是遼蔘, 其高麗, 百濟, 新羅三國, 今皆屬於朝鮮.’이라고 분명히 기술하여 고구려, 백제, 신라가 모두 조선의 역사와 영토임을 인정하고 있다.

서는 자생하거나 생산되지 않았다고 보거나, 둘째 고구려 시기에 관동화가 자생했지만 조선 시기에는 자생하거나 생산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또는 두가지 모두에 해당될 수도 있다. 이를 확인하려면 보다 다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蘭茹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사용된 것이 중국과 다른 것임이 분명한데 『향약집성방』에도 기술된 것으로 보아 오래 사용된 향약임이 틀림없다. 이것은 멀리서 온 보다 우수한 품종의 약재보다 가까이에서 신선하게 구해서 쉽게 쓸 수 있는 품종을 쓰는 경향이 많다는 것으로 鄉藥醫學의 전통이 오래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많이 알려진 내용이지만 人蔘讚과 같은 글이 섞여졌다는 것으로 보아 인삼이 고구려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임상적으로 검증됐음도 확인할 수 있다.

표14. 高麗(高句麗)가 언급된 것

| | 『비유본초』 | 『향약집성방』 |
|-----|---|--------------|
| 人蔘 | 生上黨山谷及遼東(本經) 陶隱居云 次用高麗, 高麗即是遼東. 形大而虛軟, 不及百濟. 百濟今臣屬高麗, 高麗所獻. 高麗人作人蔘讚曰, 三椹五葉, 背陽向陰, 欲來求我, 猥樹相尋. 唐本注云 陶說 人蔘苗乃是齊危枯梗, 不悟高麗讚也. 今注 人蔘見用多高麗百濟者 | 인삼 生山谷 |
| 細辛 | 陶隱居云 今用東陽臨海者, 形段乃好而辛烈, 不及華陰, 高麗者. 用之去其頭節, 人患口臭者, 含之多效. 最能除痰明目也. | 족도리풀 生山谷 |
| 五味子 | 陶隱居云 今第一出高麗, 多肉而酸恬. | 오미자 |
| 海藻 | 生東海池澤 大葉藻生深海中, 及新羅, 葉如水藻而大. 本經云 主結氣癭瘤是也 高麗昆布一斤 | 갯말음 生東海池澤 |
| 昆布 | 生東海 陶隱居云 今惟出高麗, 把索之如卷麻, 作黃黑色, 柔韌可食. | 곤포 生東海 |
| 款冬花 | 陶隱居云 第一出河北, 其形如宿蓴未舒者, 佳, 其腹裏有絲. 次出高麗百濟, 其花乃似大菊花. 次亦出蜀北部宕昌而並不如. 圖經曰 款冬花, 出常山谷及上黨水傍, 今關中亦有之. 根紫色莖青紫葉, 似蓴蓴. 十二月開黃花青紫萼, 去土一二寸, 初出如菊花萼通直而肥實無子則, 陶隱居所謂出高麗百濟者, 近此類也. | 기재되지 않음 |
| 蘭茹 | 陶隱居云 今第一出高麗, 色黃, 初斷時汁出, 凝黑如漆, 故云漆頭. 圖經曰 … 陶隱居謂出高麗者, 此近之也 | 오독도기 生山谷 |
| 白附子 | 唐本注云 此物本出高麗, … | 흰바곳 |
| 蕪荑 | 陶隱居云 今惟出高麗, 狀如榆莢, 氣臭如狐, 彼人皆以作醬食之. 性殺虫, 置物中亦辟蛀, | 느름나무씨 |

14) 강연석·안상우, 『鄉藥集成本』 「咳嗽門」에 나타난 朝鮮前期 鄉藥醫學의 특징, 韓國醫史學會誌 Vol.16, No.1, p.10

| | | |
|----|---|-------------|
| | 但患其臭. 今注 蕪萑, 河東河西, 處處有之. 况經云生晉山川谷, 而陶以為惟出高麗, 蓋是不知其元也. | 生山谷 |
| 蜈蚣 | 陶隱居云 今赤足者, 多出京口, 長山, 高麗, 山茅山, 亦甚有於腐爛積草處, 得之. | 지네 生大吳川谷 |

3) 新羅

榛子나 海松子の 경우는 중국의 것보다 우수한 품종을 썼다는 것을 알 수 있고, 茄子の 경우는 품종이 떨어지는 것을 썼음을 알 수 있다.

海松子の 경우는 품종이 우수할 뿐 아니라 과자나 식용으로 많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威靈仙 조문에서 新羅僧의 이야기는 신라에서 單方藥을 많이 쓰는 鄉藥醫學의 전통이 뿌리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15. 新羅가 언급된 것

| | 『비유본초』 | 『향약집성방』 |
|-----|---|-------------|
| 人參 | 臣禹錫等謹按藥性論云 … 生上黨郡人形者上, 次出海東新羅國, 又出渤海. 圖經曰 … 又有河北擢揚及閩中來者, 名新羅人參, 然俱不及上黨者, 佳. 海藥云 出新羅國所貢, 又有手脚狀, 如人形長尺餘, 以杉木夾定紅線纏飾之. … | - |
| 藍藤根 | 生新羅國 | 가가새 生新羅國 |
| 海藻 | 今按 生深海中及新羅 | - |
| 昆布 | 陳藏器云 … 陶云 出新羅, 黃黑色, 葉柔細, 陶解昆布, 乃是馬尾海藻也. 海藥云 … 生新羅者, 黃黑色葉細, … | - |
| 威靈仙 | 圖經曰 … 唐正元中嵩陽子周君巢, 作威靈仙傳云 先時商州有人重病, 足不履地者, 數十年, 良醫殫技, 莫能療所親置之道傍以求救者, 遇一新羅僧見之, 告曰此疾一藥可活, 但不知此土有否. 因爲之入山求索, 果得乃威靈仙也. 使服之數日, 能步履, 其後山人, 鄧思齊知之, 遂傳其事. 崔氏海上集 … 時商州有人患重, 足不履地, 經十年不差, 忽遇新羅僧見云此疾有藥可理, 遂入山求之, 遣服數日平復, 後留此藥名而去此藥 … | 불위나물 |
| 白附子 | 日華子云 … 用新羅出者, 佳. 海藥云 按南州記云 生東海, 又新羅國. | - |
| 松脂 | ■炳云 新羅往往進之 | 송진 生山谷 |
| 臘肭臍 | 臣禹錫等謹按藥性論云 臘肭臍君大熱, 此是新羅國海內, 狗外腎也, 連而取之. 圖經曰 臘肭臍出西戎, 今東海傍亦有之, 云是新羅國海狗腎. | 해구신 |
| 海松子 | 生新羅, 如小栗三角, 其中人香美, 東夷食之當果, 與中土松子不同. | 잣, 실백자 |

| | | |
|----|--|-------------|
| | 臣禹錫等謹按日華子云 … 東人以代麻腐食用 | |
| 榛子 | 生遼東山谷 臣禹錫等謹按日華子云 新羅榛子肥白, 人止飢調中開胃, 甚驗. | 가얌 生遼東山谷 |
| 假蘇 | 又有胡荽芥, 俗呼新羅荽芥, 石荽芥, 體性相近, 入藥亦同. | 정가 |
| 薄荷 | 俗呼爲新羅菝■ 俗呼新羅薄荷 | (영생)박하 |
| 茄子 | 衍義曰 茄子, 新羅國出一種, 淡光微紫色蒂長, 味甘. 今其子已遍中國蔬圃中, 惟此無益, 並無所治. | 가지 生嶺南 |

4) 東海

食鹽, 海帶, 石首魚, 烏賊魚骨 등에 언급된 東海는 동중국해와 우리나라 동해를 모두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해당 약재들이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모두 생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표16. 東海가 언급된 것

| | 『비유본초』 | 『향약집성방』 |
|-----|---|---------------|
| 食鹽 | 有東海, 北海鹽, 及河東鹽, 池梁益鹽井, 交廣有南海鹽, 西羌有山鹽, 胡中有樹鹽, 而色類不同. | 소금 |
| 海藻 | 生東海池澤 大葉藻, 生深海中及新羅, 葉如水藻而大 昆布臠法, 高麗昆布一斤, … | - |
| 昆布 | 生東海 陶隱居云 今惟出高麗, ■把索之如卷麻, 作黃黑色柔韌, 可食. 陳藏器云 … 陶云 出新羅, 黃黑色, 葉柔細, 陶解昆布, 乃是馬尾海藻也. 海藥云 謹按異志 生東海水中, 其草順流, 而生新羅者, 黃黑色葉細, 胡人採得搓之爲索■乾, 舶上來中國. | - |
| 海帶 | 出東海水中石上 | 다시마 |
| 藟菌 | 生東海池澤及渤海章武 | 기재되지 않음 |
| 白附子 | 海藥云 按南州記云 生東海, 又新羅國. | - |
| 山茱萸 | 生漢中山谷, 及琅邪, 冤句, 東海, 承縣 | |
| 臘納臍 | 圖經曰 臘納臍出西戎, 今東海傍亦有之, 云是新羅國內, … 海藥 謹按臨海志云 出東海水中 | - |
| 牡蠣 | 生東海池澤 | 큰굴조개 生東海池澤 |
| 海蛤 | 生東海 | 낫은조개껍질 生東海 |

| | | |
|------|----------------|------------------|
| 文蛤 | 生東海 | 보라빛나는조개껍질 生東海 |
| 烏賊魚骨 | 生東海池澤 | 오징어뼈 生東海 |
| 石首魚 | 生東海 | 조기 生東海 |
| 紫貝 | 唐本注云 … 出東海及南海上 | 곱은자개 |
| 馬刀 | 生江湖池澤及東海 | 말집조개 生江湖池澤及東海 |
| 淡菜 | 陳藏器 東海夫人 | 홍합 |

5) 東人

旋花의 경우 『향약집성방』에는 언급이 안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우리나라를 지칭하는 말이 아닐 수도 있다.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듯 하며 약재의 명칭을 조금씩 다르게 언급한 것으로 보아 약재 역시 조금씩 다른 약재를 사용했을 가능성도 보인다.

新定으로 宋代에 첨가된 것이므로 蠶退의 경우 高麗의 의사들이 중국의 의사들보다 더 잘 사용했던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고려의 養蠶과 의학 수준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酸棗 역시 다른 약재를 사용해서 다른 용례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표17. 東인이 언급된 것

| | 『비용본초』 | 『향약집성방』 |
|------|---|----------------|
| 白英 | 唐本注云 東人謂之白草 | 기재되지 않음 |
| 旋花 | 陶隱居云 東人呼爲山薑, 南人呼爲美草根, 似杜, 若亦似高良薑. | 기재되지 않음 |
| 蘿摩子 | 今按 … 東人呼爲白環藤 | 기재되지 않음 |
| 積雪草 | 陳藏器云 東人呼連錢 | 기재되지 않음 |
| 敗芒箔 | 今東人作箔多草爲之 | 헤진늘밭 |
| 酸棗 | 陶隱居云 … 今出東山間, 云即是山棗樹子, 似武昌棗而味極酸, 東人噉之, 以醒睡與此療不得眠正反矣 | 뒹대추씨 生川澤 |
| 木蘭 | 陶隱居云 … 今東人, 皆以山桂皮當之, 亦相類. 道家用合香, 亦好. | |
| 蠶退 | 近世醫家多用蠶退紙, 而東方諸醫用蠶欲老眠, 起所蛻皮, 雖二者之用各殊然, 東人所用者爲正用之. | 누에 알 낸 종이 |
| 蟲螽蚘蚓 | 東人呼爲舢舨 | 희떡떡 지렁이 生平土 |
| 蚘蛇膽 | 圖經曰 … 東人名爲千歲蝮 | |

| | | |
|-----|--------------------------------------|---------|
| 海松子 | 臣禹錫等謹按日華子云 … 東人以代麻腐食用 | - |
| 粟米 | 陳藏器云 … 東人以粳米爲之炒, 乾磨成也. | 조쌀 |
| 苦菜 | 陶隱居云 … 東人正作青茗茗, 皆有淳飲之. | 기재되지 않음 |
| 荏子 | 陶隱居云 … 東人呼爲蕪 | 들깨 |
| 牛舌實 | 臣禹錫等謹按陳藏器云 … 今東人呼田水中, 大葉如牛耳, 亦呼爲牛耳菜. | 기재되지 않음 |

6) 기타

舍生草의 경우 말갈국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難産에 사용된다고 되어 있다. 이것은 『향약집성방』에도 포함되지 않았고 다른 중국의서에서도 용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약재로 宋代에 첨가된 것이다. 이 약재는 말갈 지역에서만 생산되는 약재로 그 지방에서만 사용된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향약의학처럼 해당지역 의학의 한 단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표18. 기타 東夷, 遼東, 百濟, 渤海, 海東, 靺鞨이 언급된 것

| | 『비용본초』 | 『향약집성방』 |
|-----|---|---------|
| 人蔘 | 重百濟者, 形細而堅白, 氣味薄於上黨. 次用高麗, 高麗卽是遼東, 形大而虛軟, 不及百濟. 百濟今臣屬高麗, 高麗所獻. | - |
| 款冬花 | 次出高麗百濟, 其花乃似大菊花. 圖經曰 … 陶隱居所謂出高麗百濟者, 近此類也. | 기재되지 않음 |
| 海松子 | 生新羅, 如小栗三角, 其中人香美, 東夷食之當果, 與中土松子不同. 臣禹錫等謹按日華子云 … 東人以代麻腐食用 | - |
| 松脂 | 衍義曰 松子多海東來, 今關右亦有, 但細小味薄, 與栢子仁同治虛■ | - |
| 麻子 | 衍義曰 大麻子, 海東來者, 最勝. | |
| 藺菌 | 生東海池澤及渤海章武 | 기재되지 않음 |
| 文林郎 | 生渤海間, 人食之. 云其樹從河中浮來, 拾得人身, 是文林郎, 因以此爲名也. | 기재되지 않음 |
| 榛子 | 生遼東山谷, 子如小栗, 軍行食之當糧, 中土亦有. 臣禹錫等謹按日華子云 新羅榛子肥白, 人止飢, 調中開胃, 甚驗. | - |
| 合新木 | 生遼東 | 기재되지 않음 |
| 舍生草 | 主婦人難産, 口中含之立産. 亦咽其汁, 葉如卷栢而大. 生靺鞨國, 其葉煮之, 不熱, 無毒. | 기재되지 않음 |

Ⅲ. 결 론

이상과 같이 논자는 1189년에 만들어진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에서 朝鮮, 高麗, 百濟, 新羅, 東人, 東海, 遼東, 渤海 등이 언급된 약재들을 조사해 보았다. 이 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첫째 중국인들이 인정한 우수한 품종의 鄉藥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중국인들보다 어떤 약재에 대해 먼저 풍부한 지식과 임상경험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중국과는 다소 약효와 품종이 다르더라도 향약을 꾸준히 사용했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넷째 고구려, 신라, 고려과 관련된 단편적인 기록으로 당시의 의학수준이 높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섯째 朝鮮(고조선)에서는 養鷄가, 고려에서는 養蠶이 광범위하게 시행된 것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 후기 이후의 醫書만이 남아있는 우리나라 한의학계의 현실에서 이 연구는 麗末鮮初 시기에 정립된 鄉藥醫學의 원류를 찾는 기초연구가 될 것이며, 향후 本草들의 性味, 效能, 主治 및 臨床用例와 鄉藥醫學의 처방들을 좀더 면밀히 비교해보는 작업도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唐愼微 編著, 張存惠 重刊,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 南天書局有限公司 影印, 1976
- 2) 世宗朝命撰, 『鄉藥集成方(全)』, 서울杏林書院, 1943
- 3)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下)』卷35, 明文堂, 1982
- 4) 李時珍, 『本草綱目』交點本, 人民衛生出版社, 1977
- 5) 강연석·안상우, 『鄉藥集成方』중 「鄉藥本草」의 특성과 성취,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8/1, 2002
- 6) 강연석·안상우, 『鄉藥集成方』「咳嗽門」에 나타난 朝鮮前期 鄉藥醫學의 특징, 韓國醫史學會誌16/1, 2003
- 7) 尹暢烈, 本草綱目 人蔘條 懸吐 飜譯, 大田大學校 韓醫學研究所 論文集 제5권 제2호, 1997
- 8) 金斗鍾, 『韓國醫學史(全)』, 探求堂, 1993